

# ESMOD 180



03 ESMOD 180 ANNIVERSARY  
06 ESMOD SEOUL PROMOTION 2021  
18 ESMODIANS  
22 ESMOD SEOUL NEWS

vol.56

# ESMOD SEOUL

information

ECOLE SUPE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E LA MODE  
DEPUIS 1841



# CONTENTS

03 > ESMOD 180 ANNIVERSARY  
에스모드 180주년 기념

04 > ESMOD INTERNATIONAL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국제쇼 & 오카야마 데님쇼

06 > PROMOTION 2021  
제31회 졸업작품 여성복 컬렉션

10 > PROMOTION 2021  
제31회 졸업작품 남성복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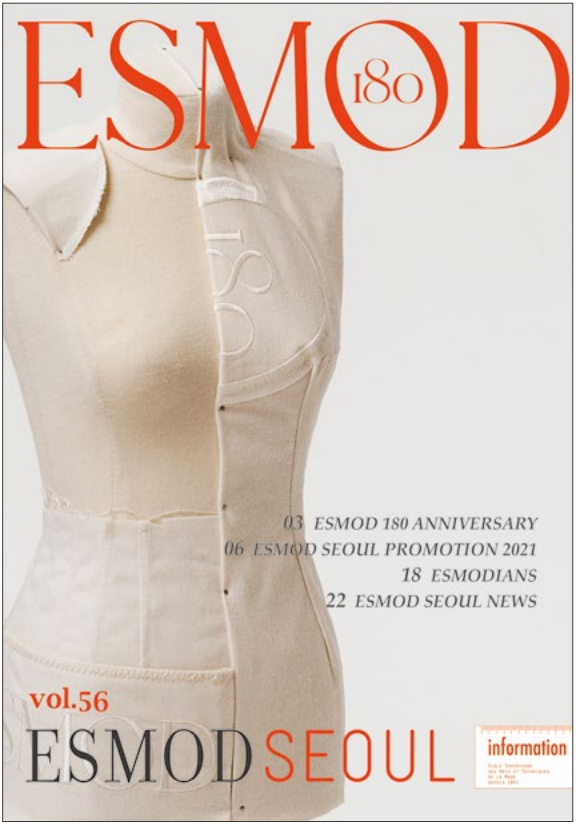
14 > PROMOTION 2021  
제31회 졸업작품 아동복 컬렉션

15 > PROMOTION 2021  
제31회 졸업작품 발표회

16 > ESMOD NEWS  
에스모드 소식

18 > ESMODIANS  
에스모드 동문 소식

22 > ESMOD SEOUL NEWS  
에스모드 서울 소식



\* 위 표지 사진은 에스모드 180주년을 기념해 에스모드 파리에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 에스모드서울 패션디자인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6 우) 06028

TEL. (02) 511-7471~3

발행 편집인 / 박윤정, 고은경 인쇄 / 오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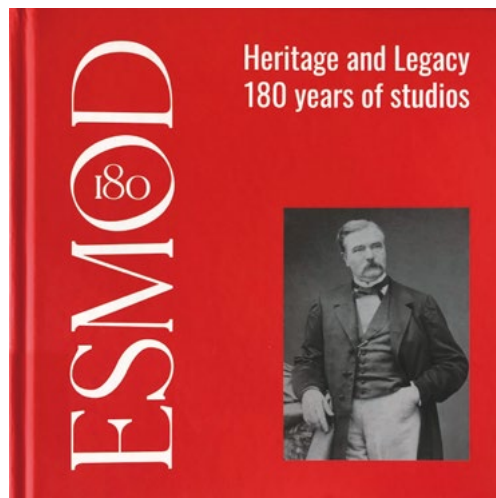
창간 / 1992년 5월 7일 등록번호 / 서울 사-1576

연 1회간 / 비매품 56호 발행 / 2022년 3월 10일

2022 MARCH / VOL. 56

# ESMOD 180

## ESMOD 180 ANNIVERSARY



2021년, 에스모드 파리가 설립 180주년을 맞았다.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궁정재단사인 알렉시 라비뉴(Alexis Lavigne)가 1841년 설립한 에스모드는 세계 최초의 패션교육기관으로, 패션교육 현대화의 기초를 마련해왔다.

설립자인 알렉시 라비뉴는 테일러링 기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재킷을 여성용으로 개발하여 승마 등의 활동 시 여성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일러링 이론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켰으며, 이를 교본으로 남겨 패션 교육 교수법을 체계화했다. 출자를 발명하여 제작했고, 남성 여성 아동용 의복제작을 위한 마네킹을 개발해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상표 등록하고 재단법에 관한 책을 발간하여 유럽의 복식 문화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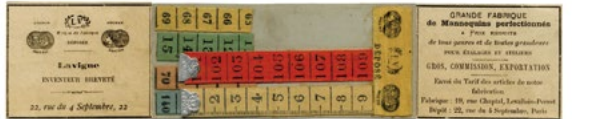
## ALEXIS LAVIGNE, THEORIST AND TEACHER

한편, 1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 13개국 19개 분교의 에스모드 관계자들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쇼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전시 및 행사에 참여하며 축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에스모드 설립 180주년 기념 국제쇼에 참석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대표들 (에스모드 서울 고은경 대표, 오성림 국제담당 참석)

## ALEXIS LAVIGNE, INVENTOR



Sampling of tape measure Lavigne, 1847

에스모드 파리에서는 에스모드의 180년 역사와 혁신을 역대 주요 디렉터가 활동했던 시대별로 조망한 「유산과 자산: 180년의 아틀리에 (Heritage and Legacy : 180 years of studios)」 기념 책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설립 초기부터 맞춤복 테크닉과 이를 교육하는 패션교육 기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는 문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진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www.esmod-editions.com



## 2022년 SUMMER CLASS 안내

에스모드 서울 SUMMER CLASS는 에스모드 3년 정규과정, 인턴십 과정 이외에 에스모드 서울의 유일한 단기 과정으로 여름방학에만 진행되며 프랑스 패션디자인 교육인 에스모드 커리큘럼을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는 본 특강은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모색, 깊이 있는 심화학습, 실무교육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모드 스틸리즘 A	7/11 ~ 7/22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에스모드 모델리즘 A	7/11 ~ 7/22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스틸리즘 B	7/11 ~ 7/22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모델리즘 B	7/11 ~ 7/22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 위 시간표와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정확한 내용은 5월 초 홈페이지 참조

### 대상

#### 에스모드 스틸리즘, 모델리즘

- 패션 디자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자
- 에스모드 패션디자인/패턴디자인 커리큘럼을 경험해보고 싶은 자
- 에스모드 서울 편/입학을 원하는 자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과정 수강생에 한함)

### 접수 및 등록절차

2022년 5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www.esmod.co.kr)에서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각 과정당 25명 내외  
\* 동학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특전

SUMMER CLASS 수료증 수여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에스모드 서울 1학년 2학기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할인혜택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10% 할인

### 문의

02.511.7471~3 (내선 103)  
admission@esmod.co.kr  
www.esmod.co.kr  
카카오톡 채널 : 에스모드서울

## 입학 안내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디자인(모델리즘)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학위 취득도 가능한 학점은 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학년 때는 여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기초 과정을, 3학년이 되면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관제리 전공을 교육합니다. 입학할 원하는 분은 6월부터 2월까지 5차례 진행되는 오픈캠퍼스 중 한 번 참석하신 후 전형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픈캠퍼스는 교과 과정 설명 및 학년별 작품집 전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체험담 발표, 교실 탐방 및 진로체험수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로체험수업은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세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오픈캠퍼스 일시

- 1차: 2022년 6월 15일 (수)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2차: 2022년 11월 18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3차: 2022년 12월 7일 (수)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4차: 2023년 1월 26일 (목)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5차: 2023년 2월 9일 (목)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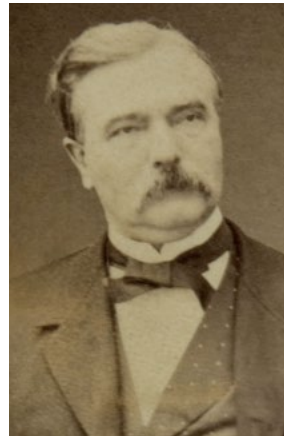
- \* 1, 2, 3, 4, 5차 중 1회만 참석해도 됨
- \* 사전 예약신청 필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진로체험수업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적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  
패션 디자인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전공, 연령, 성별 상관없음)  
에스모드 서울 현직 교수진이 진행  
매 회 선착순 25명 (예약 필수, 홈페이지 참조)

문의 : Tel. (02)511-7471 (내선 103)

## HERITAGE AND LEGACY 180 YEARS OF STUDIOS



알렉시 라비뉴 (Alexis Lavigne) 창립자, 1841~1884



알리스 게르-라비뉴 (Alice Guerre Lavigne) 디렉터, 1881~1935



베르트 르콩트-게르 (Berthe Lecomte-Guerre) 디렉터, 1935~1960



장 르콩트 (Jean Lecomte) 디렉터, 1949~1976



폴 두아리누 (Paule Douarinou), 아네트 골스타인 (Annette Goldstein) 디렉터, 1976~1996



사토루 니노 (Satoru Nino) 현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회장, 1996~현재





에스모드 수스



에스모드 광저우



에스모드 이스탄불

에스모드 서울  
김봉균

에스모드 서울 이재은



에스모드 서울 조은혜



에스모드 오슬로

# ESMOD 180 ANNIVERSARY

## ESMOD INTERNATIONAL SHOW

에스모드 18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11월 18일, 파리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자 현재 프랑스의 일드프랑스-파리 상공회의소 건물인 포토 키 대저택 (Hôtel Potocki)에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패션쇼가 열렸다. 프랑스의 주요 패션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스모드 파리 졸업작품을 포함해, 19개 에스모드 분교의 우수 졸업작품과 데님콘테스트 우수작품이 공개됐다. 함께 자리한 초청인사들은 에스모드 180년의 역사와 노하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선보인 런웨이에 찬사를 보냈다. (Photo\_Lucie Monroe, Alexandre Gaudin)



에스모드 루베



에스모드 파리 &amp; 에스모드 일본



에스모드 다마스쿠스



에스모드 자카르타



좌) 에스모드 리옹 우) 에스모드 서울 엄창용



오카야마 데님 콘테스트 시상식



에스모드 서울 박지민

# ESMOD 180 ANNIVERSARY

## ESMOD OKAYAMA DENIM SHOW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X 오카야마 데님 콘테스트가 전세계 19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학생들은 프리미엄 데님 패브릭의 주요 산지인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제공한 데님 재고 원단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데님 작품을 디자인하고 실물로 제작했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의 출품 작품이 포함된 전세계 작품들은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패션쇼의 한 스테이지를 구성, 런웨이에서 선보였다. 2학년 교육과정의 필수아이템인 테일러드 재킷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완성도 높은 데님재킷으로 선보인 에스모드서울 2학년 김명우 학생이 오카야마 데님 콘테스트 3등상을 수상했다.

(Photo\_Lucie Monroe, Alexandre Gaudin)

좌) 에스모드 자카르타  
우) 1등 수상작 에스모드 파리

2등 수상작 에스모드 이스탄불

3등 수상작  
에스모드 서울 김명우

좌) 에스모드 서울 문주원 우) 에스모드 렌즈





박은서



WGSN상 김이진



최서진 상  
금바늘상 전서



김은아



최신웅



정다예

# ESMOD SEOUL PROMOTION 2021 FEMME



최이0



김광민



장유은



홍다예



김유민



최재민 상  
프랑스문화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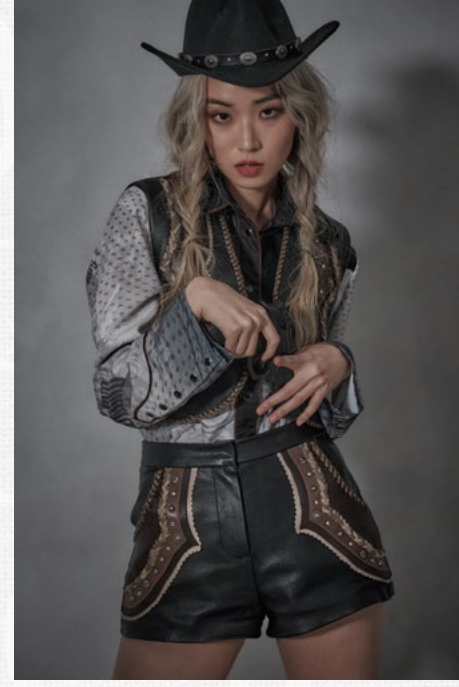




정현숙



프로모셔널상 신나영



김지현



허명지



최진우



고혜든

# ESMOD SEOUL PROMOTION 2021 FEMME



이수지



정지원

한국패션디자인어니언황희정상 김화영



오미연



오지연



양지선



올마크상 김부선





고려편 배틀리사



국태원



김영호 양대 이송원



이민석

# ESMOD SEOUL PROMOTION 2021 HOMME



조민규 프로그레스



김성우



박준수



정성민 에스티비트 드레지



김형준



이민석



최성민



설재진



김민우, 이상준



# ESMOD SEOUL PROMOTION 2021 HOMME

전규민



YKK함국상 조서훈



김종민



이준재



정재우



김민우, 이상준



신아르 노자드



김민우, 이상준







정영민, 유동원 / 어린이복



정영민, 유동원 / 어린이복



이현아, 유동원 / 아동복

# ESMOD SEOUL PROMOTION 2021 ENFANT

정영민



## ESMOD SEOUL PROMOTION 2021

### 에스모드 서울 제31회 졸업작품 발표회



### 제31회 졸업작품 발표회

지난해 12월 3일, 4일 양일간 에스모드 서울에서 제31회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에스모드 서울 패션디자인과정을 익힌 총 50명(수료생 3명 포함)의 예비 졸업생들의 작품 474점을 선보인 자리로, '학생별 부스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컬렉션이 더욱 돋보이도록 30초 분량의 컬렉션 영상을 제작해 선보여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에 앞선 12월1일과 2일, 패션업계 실무자 및 패션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53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의 작품 심사가 이뤄졌다. 예비 졸업생들은 자신의 컬렉션 부스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작품을 설명했고, 심사위원들의 즉각적인 질문에 피드백을 하는 열정적인 심사 광경이 연출됐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사위원 대상'은 남성복 전공 이승현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승현 학생의 'SYMBIOSIS'는 '지갑'에서 영감을 받아 '접혀지는 숨겨진 공간'을 디자인포인트로 만든 아웃도어 컬렉션이다. 지갑 속의 공간처럼 접히기도, 펼쳐지기도 하는 작품은 레이어드된 겹치락이 목도리로 변형되거나 판초의 형태로 둘러지기도 하는 등의 '변형된 실루엣'(Transformed Silhouette)과 구조적인 옷의 형태감이 가장 큰 특징. 스텝 폴리에스터, 나일론, 저지, 울 등을 라미네이팅해 만든

소재를 직접 개발하여 활용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소재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상적"이라며, '소재, 패턴, 소품 하나하나 가장 요즈음스러운 작품을 제작한 디자이너였다.'라는 호평을 남겼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인 학생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인 '금바늘상'은 여성복 전공 전서연 학생에게, 에스모드 파리 4학년 과정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상'에는 문성훈 학생이 선정됐다. 또한, 남성복을 제작한 최준영, 이승준 학생은 '탐텐 최우수상', '탐텐 우수상'을, 여성복을 제작한 김이진 학생은 'WGSN상'을 수상했으며, '프로모스틸상'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부문에는 조민규, 신나영, 김승현 학생이 선정됐다.

아동복 컬렉션을 제작한 엄하영, 이현아 학생은 '동동 최우수아동복상', '동동 우수아동복상'을, 박현진, 김부선 학생은 '올마크상'을 수상했으며, 조서호 학생은 'YKK 한국상'을, 김학영, 김채연 학생은 각각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상'과 '프랑스문화원장상'을 수상했다.



#### 〈제31회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발표회 수상자〉

- ▶ 심사위원 대상: 이승현(남성복)
- ▶ 금바늘상: 전서연(여성복)
-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상: 문성훈(남성복)
- ▶ 탐텐 최우수상: 최준영(남성복)
- ▶ 탐텐 우수상: 이승준(남성복)
- ▶ WGSN상: 김이진(여성복)
- ▶ 프로모스틸상: 신나영(여성복), 조민규(남성복), 김승현(아동복)
- ▶ 동동 최우수아동복상: 엄하영(아동복)
- ▶ 동동 우수아동복상: 이현아(아동복)
- ▶ YKK한국상: 조서호(남성복)
- ▶ 올마크상: 김부선(여성복), 박현진(남성복)
-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상: 김학영(여성복)
- ▶ 프랑스문화원장상: 김채연(여성복)



31회 졸업작품 영상

#### SPONSORSHIP



dong do ng



TOPTEN10



PROMOSTYL  
INTERNATIONAL STYLE AND TREND OFFICE



ESMO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es & Universities Group



재단 에스모드서울재단



# KOLON SPORT x ESMOD SEOUL

## 에스모드 서울, 코오롱스포츠와 「지속가능한 패션환경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에스모드 서울은 '코오롱스포츠'의 재고 의류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는 '지속 가능한 패션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제주 '숏츠 리버스(숏츠 RE:BIRTH)'에서 새롭게 탄생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의 패션을 이끌어갈 에스모드 서울과 지속가능한 패션환경에 앞장서는 코오롱스포츠의 만남으로,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기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다.

에스모드 서울 2학년 학생 전원이 12개 팀으로 참여한 본 프로젝트는 2021년 1월부터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지난해 7월 5일 코오롱스포츠의 임원과 디자인실 관계자, 마케팅팀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다. 요즘 핫트렌드인 '캠핑'을 주제로 총 56벌의 재고상품을 활용해 12개 브랜드가 론칭됐으며, 뉴모델링된 작품 55점, 75개의 액세서리와 40벌의 티셔츠가 새로운 커머셜 상품으로 탄생됐다.

학생들은 시장조사부터 기획, 디자인, 제작의 전과정을 담당하며 환경과 지속가능, 사회를 잇는 의미를 녹여낸 패션브랜드를 론칭하고,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철학을 담아 유니크하면서도 가치 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각양각색의 컨셉과 메시지도 주목할 만하다.

12개의 브랜드는 ▲하우스캠핑 #WWYF(더블유더블유와이에프) ▲가죽끼리 자연 속에서 별과 반딧불이를 감상하는 캠핑, 별을켜자 ▲MZ세대들의 캠핑, CHAIN-Z(체인지) ▲자연을

생각하고 즐기는 캠퍼들을 위한 브랜드, 플로미안프로젝트(PLOMIAN PROJECT) ▲2077년 미래의 시점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캠핑, 2077(이공칠칠) ▲과거, 현재, 미래의 한국 캠핑, 보곰(BOGOM) ▲오리가미의 기법을 활용한 차박캠핑, 팩카미(PACKAMI) ▲LED를 활용한 한국적인 나이트 하이커를 위한 캠핑, 옷속집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추구하는 트랙커를 위한 캠핑, 111(트리플원)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캠핑, ONE AND THE SAME(원앤더세임) ▲집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극한 캠핑으로 느껴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옷, 언라벨(UNRAVEL) ▲SNS에 관심 많은 소녀들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캠핑, CALL ON KOLON(코로롱) 등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아 패션 그 이상의 문화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작품심사를 한 코오롱FnC의 CSO이자, 코오롱스포츠 총괄 디렉터 한경애 전무는 "재고로 또다른 재고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제품은 상품성이 있어 보였다"라며, "팔다 남은 재고 의류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이 낭비가 아닌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패션의 미래를 담당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제안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에스모드 서울의 '지속가능한 패션환경을 위한 프로젝트' 작품 중 우수작 일부는 제주 탐동에 위치한 '숏츠 리버스(숏츠 RE:BIRTH)'에서 1월 10일부터 전시중이다. '숏츠 리버스(숏츠 RE:BIRTH)'는 'WASTE LESS, WEAR LONGER'를 슬로건으로, 코오롱스포츠가 자체적으로 업사이클링한 상품을 선보이고, 지속가능 경험을 제공하는 등 코오롱스포츠의 모든 친환경 활동을 담아내는 컨셉으로 운영된다.



제주 탐동 '숏츠 리버스(숏츠 RE:BIRTH)' 전시

# 대상 / #WWYF(더블유더블유와이에프)  
송승환, 유은영, 윤지환, 조슬희, 최석훈



PACKAMI(팩카미)  
신우선, 이지서, 황피타로안, 현유은



# 장려상 / 2077(이공칠칠)  
김경원, 엄청용, 윤태훈, 이윤후



111(트리플원)  
구민준, 김서영, 노영석, 윤아정, 임기혁



CALL ON KOLON(코로롱)  
김나은, 서진영, 장현지, 주민상, 한소정



# 우수상 / 별을켜자  
강다민, 이민형, 진영성, 홍시연



옷속집  
김나윤, 김명우, 오승택, 이하준



# 장려상 / UNRAVEL(언라벨)  
강현민, 배상훈, 이승재, 임정찬, 정세윤



# 최우수상 / CHAIN-Z(체인지)  
강은석, 김현비, 노강민, 이세영, 정다빈



ONE AND THE SAME(원앤더세임)  
박유나, 방예슬, 아랑딘 피아닐, 이종현, 최연재



# 장려상 / PLOMIAN PROJECT(플로미안 프로젝트)  
김유진, 김이은, 신수아, 유성민, 전가은



BOGOM(보곰)  
김민아, 류진영, 문주원, 하지영





# 2021 1학년 창작셔츠 발표회

2021년 12월 17일, 1학년 학생들의 창작셔츠 발표회 및 시상식이 에스모드 서울에서 열렸다.

예년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셔츠를 입고 모델이 되어 런웨이에서 작품을 선보였지만, 팬데믹 이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 조치로 영상 발표회로 창작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회 역시 학생들이 완성된 셔츠를 입고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연출, 제작한 영상은 SNS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발표회를 위해, 학생들은 스틸리즘 수업에서 화이트, 비비드 컬러, 미드 톤, 블랙 등의 컬러 테마와 함께 각자의 다양한 컨셉으로 자신만의 테마를 풀어냈다. 이미지맵 작업, 스타일화, 도식화 등으로 구성된 셔츠 작품집을 완성했으며, 모델리즘 수업에서는 디자인한 모델을 패턴구성, 재단, 봉제 과정을 거쳐 실물 제작했다.

셔츠 작품 심사 결과,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17명의 수상자가 선정됐고, 대상인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은 추소는 학생에게 돌아갔다.

추소는 학생의 작품은 1990년대 미국 클럽의 색 슈얼하고 과장된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다. 몸을 조이고 드러내면서 새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코르셋의 실루엣에 초점을 맞춰 '뉴 타입(new type) 코르셋'을 개발했다.

추소는 학생은 "어느정도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대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상 직전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아 '아쉽지만 지금까지 노력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불려 열렬했고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두 발로 쿵쿵 뛰어 단상까지 나갔다."라며, "이상은 나의 발전과 성장을 바라는 에스모드 서울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더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 창작셔츠 수상자



-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대상): 추소은
- 최우수상: 박정현, 윤영식
- 우수상: 권재원, 김지현, 김희창, 이정재, 서서우, 신윤수, 정혜령
- 장려상: 박재희, 안희민, 이준희, 인재찬, 장석환, 조수연, 하유진

## <창작셔츠 영상>



## 미래의 ESMODIAN 후배들에게

## 무신사 맨즈 디자인실 김지훈

(24기, 남성복 전공)

에스모드 서울 졸업 후 패션 대기업인 신원, 인디에프, LF 등을 거쳐 현재 무신사 맨즈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4기 김지훈 동문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Q. 왜 패션디자인을 공부하게 되었나요? 에스모드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예전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의류사업을 하시는 부모님과 친인척들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패션 업계에 계시는 친인척분들의 조언으로 실무의 중요성을 알게되었고, 에스모드 서울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Q.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이론보다 실습 위주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 수업의 강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 얻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는 연결고리가 있어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동기들과는 자주 왕래하며 같은 포지션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다지고 있습니다.

**Q. 졸업 후, 실무를 통해 느끼는 에스모드 교육의 장점이 있나요?**

학과 과정 중에 옷을 직접 만들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할 때 이해하는데 있어서 확

실히 다른 신입 디자이너들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선배들도 에스모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에스모드 졸업생들을 좋은 시선으로 봐주었습니다.

**Q. 패션디자이너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태도가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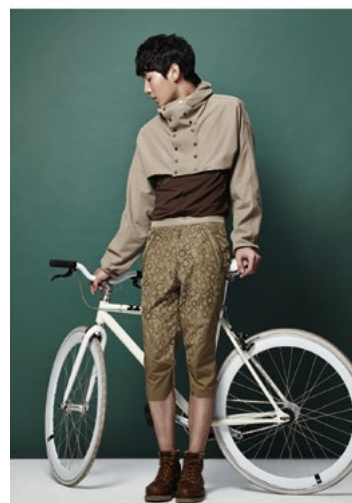
회사를 다니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케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밖에 서칭 능력 및 소비자의 니즈 파악 능력이 받쳐준다면 기업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칭 능력은 필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서칭하는 습관 및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 김지훈 동문에게 에스모드 서울이란?**

'네트워크' 다.



김지훈 동문 졸업작품



2학년 워크숍 작품



24회 졸업작품발표회 현대홈쇼핑상 수상

## 매일이 선물같은 하루하루

고등학교 입학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내린 첫 결정이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일에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지만 무엇을 하든 1년이 되지 않아 흥미를 잃고 관두고 말았습니다. 패션과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미술도 시작했지만 역시 중도 포기하고 포기와 실패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간에 에스모드를 체험할 수 있는 썸머클래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썸머클래스에서 나와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서로 생각을 교류하며 패턴과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주라는 단거리 완주를 끝내고 "아, 또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저는 에스모드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패션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고 생각하고 더하고 빼면서 영화, 문화, 예술 작품, 뮤즈 등 어떤 요소든지 옷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분석해 옷을 그대로 구현해 내는 모델리즘 수업은 패션을 처음 공부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1학년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창작셔츠 프로젝트에서 저는 '대상' 수상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봉틀에 실 감는 방법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디자인부터 패턴 봉제까지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모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모드를 다니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바쁜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잠을 줄여가며 작업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몸과 마음이 괴로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학생의 생각과 색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냈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의 내면도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학생을 사랑하고 교육에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에스모드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학년 2학기엔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고 장학생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게 되어 학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에 다니며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포기의 딜레마에서 제 자신을 잃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에스모드에서의 열정 넘치는 하루하루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모드는 체형해 나갈수록 매력 있는 곳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관계없이, 에스모드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패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여러분이 후회 없는 여정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 미래의 ESMODIAN 후배들에게

# 정규과정 1학년 추소은



## 내가 찾은 진짜 길은 에스모드에서

# 인텐시브과정 김도연



저는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해 한불 통역을 공부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대학원이었지만 저와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휴학을 결정했고 쉬는 동안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휴학한 동안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옷을 판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트를 꾸리고 도매시장을 다니며 저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패션계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처음 품게 되었고 예전부터 사고 싶던 재봉틀도 샀습니다. 원단시장을 돌아다니고, 재봉틀을 만지며 이게 내가 잘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패션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검색했고 에스모드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썸머클래스'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썸머클래스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청했고, 2주간의 수업은 제 인생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야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편입학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인텐시브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썸머클래스 기간에 교수님들과 상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교수님 두 분 모두 당신의 일처럼 상담해 주셨고, 상담을 통해 인텐시브

브 과정 입학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지원 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인텐시브 과정은 저에게 안성맞춤인 클래스입니다. 썸머클래스 때 조금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기초는 인텐시브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옷을 직접 만들어 보는 모델리즘 과목도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인텐시브 과정의 장점은 각자가 가진 색깔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1:1 개별맞춤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학생마다의 성향을 파악해서 학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갈고 닦으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에스모드 입학 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도 잠깐 가졌지만 교수님들과 같은 반 친구들 덕분에 잘 적응했습니다.

에스모드 입학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사고방식이 더 유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매 수업시간마다 각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스스로 수정하고 여러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전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유연함을 바탕으로 저는 저만의 색깔과 가치관을 녹인 브랜드 론칭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선은 패션회사 디자인실에 입사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For MZ by MZ GENERATION

1인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브랜드나 사업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패션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꿨을 나만의 브랜드!

개인 취향이 확고한 MZ세대를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 MZ 동문들의** 브랜드를 소개한다.

## SATUR 세터 2020년 론칭 1991년생

26기 손호철 (남성복 전공)

손호철 동문이 26기 동기인 임종현, 조현택 동문과 함께 론칭한 세터는 '토요일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토요일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감성을 담은 리조트 컨템포러리 룩을 선보인다. 세터는 인스타, 유튜브 및 블로그, 카페 채널을 통해 고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력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팬덤을 이뤄낸 세터만의 비결이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엔 세터의 룩북, 제품, 작업과정 및 이벤트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만나볼 수 있다. 제품은 세터 공식 온라인 몰과 무신사 스토어에서 전개중이다. @satur\_official



SATUR 세터



## Le Forong 르포롱 2020년 론칭 1992년생

25기 조민정 (여성복 전공)

브랜드명 르포롱의 '포롱'은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나타낸 순우리말 '포롱거리다'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늦겨울과 초여름의 경쾌한 무드와 청량함을 지향한다. 알록달록한 파스텔 컬러를 기반으로 라운지웨어에서부터 원피스, 재킷 및 슈츠,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라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을 존중하는 조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상품을 선보인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지향해 한 시즌당 하나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슬로우패션을 추구한다. 자사몰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W컨셉 및 런던 Asos Marketplae에 입점되어있다. @leforong



Le Forong 르포롱

## PEINTURE 페인쥬얼 2021년 론칭 1998년생

30기 이다영 (여성복 전공)

2020 ISKO I-SKOOL DENIM AWARDS 최종우승자인 이다영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 페인쥬얼은 스스로에게 옷으로 그림을 그리듯, 옷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을 담았다. 21Pre Fall 컬렉션을 시작으로 아우터, 탑, 드레스, 팬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비대칭된 컷아웃 타입과 레이어드 구조의 아이템이 특히 인기. 자사몰 외 29CM, 편집숍 Al,thing에 입점돼 있으며, 인스타그램으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peinture\_official



PEINTURE 페인쥬얼

## 1991 ONENINENINEONE

2017년 론칭 1991년생 26기 안지연, 강미진 (여성복 전공)

1991년생인 두 동문의 합작브랜드 1991은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한마디 '위대한 예술은 꽃, 큰 가지, 과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특정장소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를 슬로건으로 '우리의 것'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아이템을 전개하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통통 튀는 그래픽 아트, 걸리쉬&스트리트 무드를 기반으로 티셔츠, 팬츠 등의 기본 아이템부터 휴대폰 케이스, 쇼퍼백, 주얼리 등을 제작한다. 자사몰, 무신사, W컨셉, 29CM에 입점되어 있다. @oneninenineone\_1991



1991 ONENINENINEONE



clove 클로브



## clove 클로브 2016년 론칭 1985년생

17기 전주현 (마케팅 전공)

전직 마케터였던 전주현 동문이 론칭한 테니스&골프 라이프웨어 브랜드, 가벼운 운동 시, 혹은 운동 가기 전후에 착용할 수 있는 컬렉션을 제안한다. 로고 'c'를 활용한 기본 아이템을 선보이며, 트레이닝 셋트 위에 매치할 수 있는 조끼류와 집업류가 특히 인기가 좋다. 심플하고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여 수많은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들이 알아서 착용하는 브랜드로 알려졌었다. 최근 카카오톡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더욱 공격적으로 패션 커머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loveclub

## U.I.I 유아이제이아이 2019년 론칭 1981년생

16기 박의지 (여성복 전공)

90년대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클래식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여성의 입체적인 볼륨을 유연하게 표현한 브랜드다. 소재와 컬러, 독자적인 패턴으로 승부하며 동시에 일상에서 쉽게 손이 가는 품목을 제안한다. 브랜드의 미니멀리즘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건 당연 컬러, 정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컬러가 유아이제이아이만의 매력 포인트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옷장에 오래 머무는 옷을 추구한다. 온라인 편집숍 'W컨셉'과 '29CM'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서울 성북동에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uiji\_official



U.I.I 유아이제이아이





# WHAT Students of ESMOD SEOUL Are Wearing

## i-D MAGAZINE visits ESMOD SEOUL in South Korea to ask 7 students about their looks and the inspiration behind their designs

아이디 매거진은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전직 보그 아트 디렉터 테리존스(Terry Johns)가 1980년대에 창간한 패션잡지로, 펑크시대였던 당시 런던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포함한 패션, 음악, 예술, 청년 문화 등을 소재로 현대문화를 기록해왔다. 링크하면서 옷는 모습을 글자로 형상화한 i-D는 마돈나, 톰 포드, 나오미 캠벨과 같은 당대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이 링크를 하는 커버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로벌 매거진 i-D에서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의 #ootd(Outfit Of The Today)를 영상에 담았다. 다음은 i-D가 선택한 일곱 학생들의 한마디.



i-D MAGAZINE  
에스모드 서울 #ootd 영상



박지민 Jimin PARK

My style is best described as a 'runaway' look. I draw inspiration from the idea of people wanting to run away from a mundane work routine or society's limitations.



김주형 Juhung KIM

I usually draw inspiration from my daily life, people, architecture and scenery. These influences are the framework of my designs.



윤영식 Youngsik YOON

I made this jacket patching together denim from different pairs of jeans and created the sleeves and the jumpsuit. I also sprayed my shoes and customized them by poking holes.

앨리슨 강 Allison Kang

I think something happens when you put on a clothing item. You can feel confident. It's really important to design things that really speak to you.



정겸하 Kyumha JEONG

Studying at ESMOD Seoul, I helped me discover skills I didn't know I had. This school really drives you forward.



조다은 Daeun 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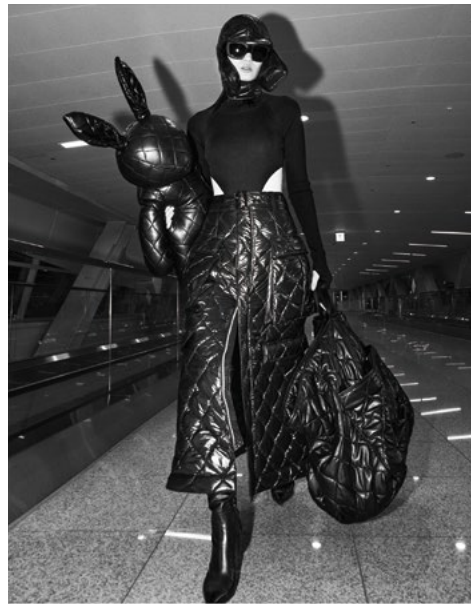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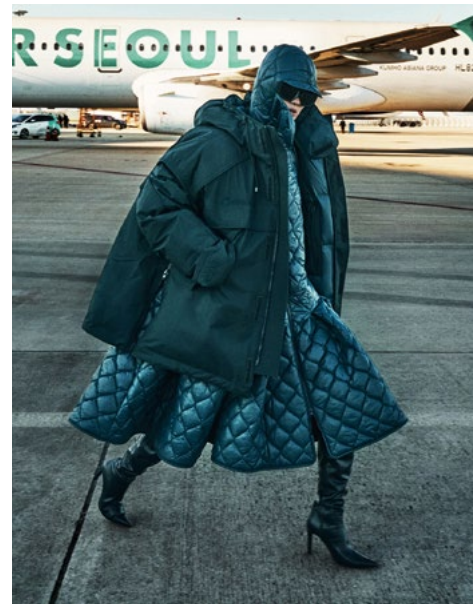
My dream is to launch a brand that has personality, but isn't tied to trends.



박제정 Sejeong PARK

I try to design clothes that accentuate female curves and reveal a bit of sexiness.

## 준지 JUUN.J, 22 FW 컬렉션 공개



에스모드 서울 2기 정욱준 동문의 삼성물산 패션부문 글로벌 브랜드 준지(JUUN.J)가 1월 21일 오후 8시, '22년 FW 시즌 컬렉션을 진행.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크리에이티브 영상 및 이미지를 라이브로 공개했다.

준지는 이번 시즌 'JUUN.J SET'을 테마로, 1960~70년대 젯셋(Jet-Set)족들의 공항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감 넘치는 룩과 언제나 새로움과 젊음을 대변하는 팝스타들의 스타 일링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 젯셋족은 비행기로 여유있게 여행 다니는 것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퀴팅을 사용해 볼륨과 풍성한 실루엣을 표현했고, 아우

터는 울론 맥시 드레스, 스커트, MA-1, 재킷, 후디 등 다양한 아이템에 새롭게 적용했다.

준지는 지난 시즌에 이어 세계적 가능성 소재 브랜드 고어텍스(GORE-TEX)와 협업한 아우터를 선보였다. 앞서 캡슐 컬렉션 라인으로 확장했다. 퀴팅, 자수 등을 믹스매치해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유틸리티 무드를 선보였다.

준지는 블랙, 브라운, 딥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오버다잉(기존 원단 염색 컬러에 구현하고 싶은 컬러를 다시 염색하는 것) 기법을 블루 데님 등에 포인트로 사용했다.

한편 준지는 이번 시즌 테마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항공사 '에어서울(AIR SEOUL)'과 협업했다. 인천국제공항 및 '에어서울(AIR SEOUL)' 객납고에서 촬영을 진행. 이번 시즌 22개의 컬렉션 아이템들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럭셔리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MONTBLANC)도 뛰어난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의 트롤리(여행용 캐리어)를 협찬해 컬렉션의 의미를 더했다.

정욱준 준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일상을 되찾고 밝은 미래와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제31회 졸업식

2월 18일, 에스모드 서울 31회 졸업식이 개최됐다. 올해는 여성복 전공 25명, 남성복 전공 21명, 아동복 전공 4명 등, 수료생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졸업생이 에스모드 서울의 패션디자인 과정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에스모드 서울 교직원과 3학년 학생들만 자리한 졸업식에서 모든 졸업생과 수료생은 차례로 졸업장과 수료증을 받았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졸업작품발표회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금바늘상 등 총 12개 부문 상이 수여된데 이어, 졸업식에서는 각 전공별 최우수상과 대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홍인수 교장은 "여러분들은 에스모드에서 이미 탄탄하게 훈련받은 능력자들이다. 앞으로 수많은 벽들을 마주할 때, 우리 31기들은 결코 겁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긍심을 가지고 실무에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더했다.

### 제31회 졸업식 수상자 명단

- 대 상: 전서연
- 여성복 최우수상: 정지원
- 남성복 최우수상: 이승현
- 아동복 최우수상: 엄하영
- 공로상: 국태원, 김지현, 김경준, 박현진, 설재진, 엄하영, 이민석, 이수지, 최성민, 최준영

## 제34회 입학식

2022학년도 에스모드 서울 제34회 입학식이 2월 28일 오후 2시, 본교에서 열렸다. 입학식에는 올해 신입생과 본교 교수진 및 올해 1학기 장학생들이 자리했다.

고은경 대표는 축사를 통해 "어느 패션기업에 가도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이 다양한 패션기업의 브랜드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있다. 에스모드만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훗날 34기 여러분들도 후배들에게 그런 힘이 되는 졸업생이 될 것을 믿는다."는 축화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2022학년도 1학기 에스모드 서울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매 학기 선발되는 장학생은 성적, 출결사항, 학교생활 참여도,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직원 장학금 사정회와 재단법인에스모드서울재단 이사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1학기에는 무신사(대표 강정구, 한문일) 장학금을 비롯해, 지난 해에 이어 가방브랜드 OSO(대표 강희진, 이사 이영근), 동국제강이 출연한 재단법인 송원문화재단(이사장 장세욱), 픽스처퍼매브리케이션(대표 김경오)에서 후원한 장학금이 신설돼 총 2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입학식을 마친 후 학사일정과 교칙, 교수진 소개 및 학교시설에 대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각 반 교실에서 스터디룸, 모뎀리움 담당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에스모드 파리 본교에서 제작된 교구와 교재를 배부 받았다.



에스모드 서울 31회 졸업식

###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 명단》

박윤정 최우수 장학생	3학년 문주원
박윤정 우수 장학생	3학년 이준화, 2학년 박재희
무신사 패션 장학생	3학년 김명우
에스모드서울재단 장학생	2학년 김민경
동동재단 최우수 장학생	3학년 김나윤
동동재단 우수 장학생	3학년 김유진
울산 장학생	2학년 김유민
재정 장학생	3학년 최한솔
한영 장학생	2학년 박정현
이건 장학생	2학년 한상진
일정 장학생	3학년 최석훈
유순덕 장학생	3학년 배상훈
루비나 장학생	2학년 박유미
송원 장학생	3학년 유성민, 3학년 김도연, 3학년 정세윤
OSO(오소이) 장학생	3학년 김이은, 3학년 배주담
(주)픽스처 퍼매브리케이션 드림 장학생	3학년 이윤후, 3학년 진영성
해선 장학생	2학년 이정재
자인 장학생	2학년 권재원
보라 장학생	2학년 윤나영
자영 장학생	2학년 조다은
록원 장학생	3학년 박지민
에스모드서울 교직원 장학생	2학년 장석환



A woman with long brown hair and blue eyes is walking on a cobblestone street. She is wearing a black suit and carrying a white bag. The word "osoi" is written in white lowercase letters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osoi